

정조대 柳台佐의 抄啓文臣 활동

김 문 식*

Ⅰ 국문초록 Ⅰ

본고는 정조 대에 규장각 초계문신에 선발된 류이좌의 활동을 통해, 정조의 교육정책이 영남 사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정조는 1790년대에 들어와 영남에 있던 남인 세력을 주목하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발탁하였다. 영남의 사족이었던 류이좌가 초계문신에 선발되고 중앙에서 활동한 배경에는 정조와 남인에게 영수였던 체제공의 후원이 있었다.

류이좌는 초계문신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경서를 익히고 문장력을 키웠으며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여 정조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올렸다. 또한 그는 규장각에서 주관하는 편찬사업에 참여하고 새로 간행된 서적을 하사받았다. 류이좌는 정조대 규장각의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며 학자와 관리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나갔다.

류이좌는 정조와 학문을 토론하면서 주자학을 존숭하고 퇴계의 학설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정조도 주자학과 퇴계의 학설을 인정하였지만, 류이좌는 정조보다 주자학과 퇴계의 학설을 더욱 존중하였다. 류이좌는 정조에게 경제 방안을 건의하였고, 그중에서 일부는 실현되었다. 류이좌는 정조가 학문 연구와 서적 편찬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고, 탐관오리를 강하게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그는 화성을 육성시킬 방안과 조령 지역의 폐단을 바로잡을 방안을 건의하여 정조의 허락을 받았다.

류이좌는 정조의 의도를 따라 초계문신에 선발되었으며, 정조의 개혁정치를 실천할 인재로 성장한 영남 사족이었다.

[주제어] 류이좌(柳台佐), 정조, 체제공, 초계문신, 주자학, 영남 남인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V. 朱子學과 退溪 학설의 존중 |
| II. 가계와 생애 | VI. 經世 방안의 건의 |
| III. 抄啓文臣의 교육 과정 | VII. 맺음말 |
| IV. 국가적 행사 참여와 서적 편찬 | |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kmsik@dankook.ac.kr

I. 머리말

鶴棲 柳台佐(1763~1837)는 西厓 柳成龍의 후손으로 태어나 正祖 대에 奎章閣 抄啓文臣에 발탁되어 학문과 시문을 연마한 영남의 남인계 士族이다. 그가 초계문신으로 활동한 1790년대는 정조가 주도하는 개혁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규장각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편찬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류이좌는 규장각에 소속되어 정조와 직접 접촉하면서 학문을 익히고 시문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李彙載(1795~1875)는 류이좌와 정조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벼슬길에 오른 처음에 正廟(정조)가 다스리는 크고 밝은 기회를 만났다. 초계문신에 선발되어 內閣(규장각)에 들어가 藝林에서 명성을 날렸으니,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사대부들과 함께 노닐 것이 전후 7년이 되었다. 서로 어울리며 환하게 화합이 되고 국왕의 돌봄이 더욱 두터웠으나 당시에는 바로 쓰이지 않았다. 이는 그의 재주를 아껴 (외직에서) 관리로서의 능력을 대략 시험하고, 얼마 있다가 안으로 불러들여 국왕의 계책을 보필하는 책임을 맡기려 하셨던 것이다.¹⁾

이를 보면 류이좌는 초계문신에 선발된 후 정조의 보살핌을 받고 당대의 名士들과 어울리면서 장차 국왕의 개혁정치를 보좌할 인재로 성장하였다

본고는 류이좌의 초계문신 활동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조의 교육정책이 동시기 영남 사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류이좌의 가계와 생애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류이좌가 초계문신으로 있을 때 교육 과정과 활동상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그가 제시한 학문관과 經世 방안을 살펴보고 한다.

본고에서는 류이좌의 문집인 『鶴棲先生文集』과 정조의 『弘齋全書』를 주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실록이나 『日省錄』과 같은 연대기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본고는 18~19세기에 걸친 역사적 전환기에 영남 사족들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차원에서 류이좌의 초계문신 활동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II. 가계와 생애

柳台佐는 선조 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柳成龍(1542~1607)의 8세손이다. 류성룡은 1590년(선조 23)에 光國功臣에 책록되고 豊原府院君에 봉해졌으며, 1604년(선조 37)에는 扈聖功臣에 책록되고 다시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 이후 그의 奉祀孫 4대가 封君되어 柳聖和는 豊陽君, 柳濤은 豊昌君, 柳宗春은 豊恩君, 柳相祚는 豊安君으로 襲封되었다. 이중에서 류이좌의 증조부인 柳聖和는 산음 현감을 역임하고 호조 참판에 증직되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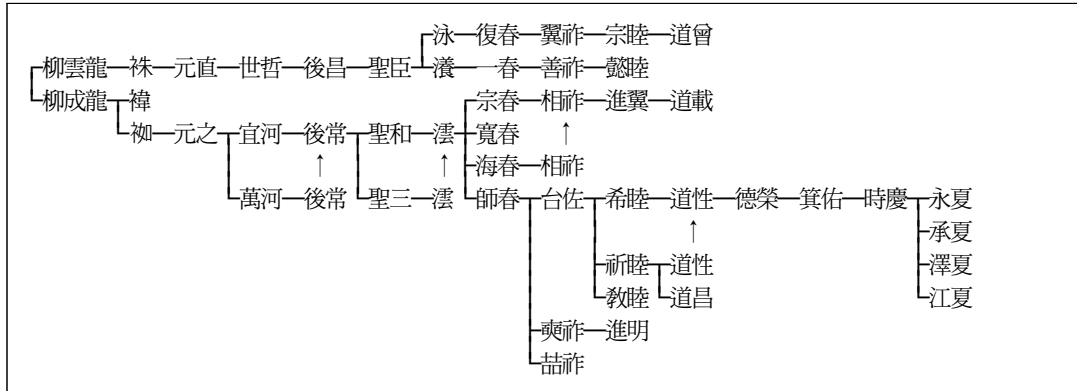
1) 『鶴棲先生文集』 권20, 附錄, 「行狀李彙載」.

며, 조부인 柳灃은 황간 현감을 역임하였다. 伯父인 柳宗春은 1791년(정조 15)에 류성룡의 봉사손으로 의금부 都事를 역임하였고, 從兄인 柳相祚는 1794년(정조 18)에 과거에 급제한 후 병조판서와 오위도총부 都總管 등을 역임하였다.

류이좌의 부친인 柳師春은 僉知中樞府事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증직되었고, 모친은 예조판서를 지낸 延安 李之億의 따님으로 貞夫人에 증직되었다. 그의 외조부인 이지억은 1604년에는 호성공신에 책록되어 延原君에 봉해진 李光庭의 후손이다.

다음의 〈표 1〉은 지금까지 살펴본 류이좌의 家系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柳台佐의 가계도²⁾



류이좌의 생애는 성장기(1763~1794), 정조 대의 사환기(1794~1800), 정조 이후의 사환기(1800~1837)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다.³⁾

먼저 성장기는 서울에서 류사춘과 연안 이씨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문과에 급제할 때까지의 시기다. 류이좌는 1763년(영조 39) 12월 4일에 서울 羅洞에 있던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 모친에게 경전의 글자를 배웠고, 7세에 백부 柳宗春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때 그는 서울에서 蔡濟恭을 만났으며, 체제공이 그의 문장을 시험하였다. 체제공은 류이좌의 모친인 연안 이씨와 內外 형제간이었다.

1792년(정조 16)에 류이좌는 영남 유생들이 思悼世子의 복권을 요청하는 嶺南萬人疏를 올릴 때 寫疏로 참여하였다가 창덕궁 熙政堂에서 정조를 만났고,⁴⁾ 훗날 영남만인소를 작성하여 올리는 과정을 정리한 『闡揮

2) 和敬堂에서 제공한 『豐山柳氏世譜』과 金貞云, 『17~18세기 경상도 북부지역 사족의 친족관계 연구: 일기에 나타난 혼인과 제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11쪽을 참조하여 작성함.

3) 류이좌의 생애는 호조참의 李彙載가 작성한 「行狀」, 아들 柳祈睦이 작성한 「家狀」, 병조판서 柳相祚가 작성한 「墓誌銘」과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 연대기를 참고하였다.

4) 『百世隕結錄』 上.

“嶺人李堉等一萬五十七人，聯名上疏。臣以寫疏進，卽閏四月二十七日也。上御熙政堂……寫疏金宗華，金熙周，柳台左……以次入侍。”

錄』(壬子疏廳日錄)을 작성하였다. 이 무렵 그는 三宗祖인 柳 湑의 宣陵 任所에서 『心經』과 『近思錄』, 朱子書를 배웠고, 1794년(정조 18) 2월에는 從兄 柳相祚(1763~1831)와 함께 문과에 급제하였다.⁵⁾ 집안에 전해지는 그의 紅牌를 보면 丙科 제5인으로 급제하였고, 홍패가 작성된 날짜는 3월 10일이다.⁶⁾

다음으로 정조 대의 사환기는 그가 규장각 초계문신에 선발되어 학문을 수련하고 국가 행사에 참가하면서 장차 크게 쓰일 인재로 성장하던 시기다. 이무렵 정조는 생부 思悼世子的 완전한 복권을 준비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하던 영남의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었다.⁷⁾ 류이좌는 문과에 급제한 당일에 창덕궁 편전에서 정조를 만났다.⁸⁾ 다음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서 나눈 대화이다.

정조: “너는 西厓의 몇 世이냐?”

류이좌: “8세손입니다.”

정조: “柳相祚와는 몇 寸이냐?”

류이좌: “4촌입니다.”

정조: “그저께 謁聖試와 한 구절이 같은데 누가 가져온 것이냐?”

류이좌: “臣이 가져온 것입니다.”

정조: “머칠 사이에 중형제가 연달아 합격하니 매우 嘉尙하다.” (얼굴을 들라고 명령하고) “너의 외가는 누구냐?”

承旨: “故 판서 李之億의 외손입니다.”

정조: “처가는 누구냐?”

류이좌: “故 대사헌 李世澤이 처조부입니다.”

정조: “翰林圈點에 들어가야겠구나.”⁹⁾

1794년 8월에 정조는 다시 류이좌를 소환하였다. 이보다 앞서 승지 李益運이 영남 지역을 방문했다가 古家의 文籍들을 수집해 왔으며, 여기에는 임진왜란 때 李如松을 비롯한 명나라 장수들이 류성룡에게 주었던 書帖 2권과 畫帖 1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서화첩은 류성룡의 봉사손인 柳宗春 집안에서 보관하던 것이었다. 정조는 서화첩을 열람한 후 序文을 작성하였고, 領中樞府事 채제공에서 자신의 서문을 베껴 쓰고 별도의 跋文을 작성하게 하였다.¹⁰⁾ 정조는 서화첩을 돌려보낼 때 초계문신 류이좌를 불러 보내게 하였다.¹¹⁾ 정조는

5) 『豐山柳氏世譜』를 보면 柳相祚는 1763년(영조 39) 2월 21일 生, 류이좌는 1763년 12월 4일 生이다.

6) 柳台佐는 1794년 2월 21일에 熙政堂에서 개최된 三日製 시험에서 三下의 점수를 받아 直赴會試의 혜택을 받았고, 2월 29일에 열린 廢科 庭試에서 丙科 47인에 포함되어 급제하였다. 이때 그의 거주지는 안동으로 나타난다(『日省錄』 正祖 18년 2월 21일(己卯); 2월 29일(丁亥)).

7) 김성우는 정조가 1793년(정조 17) 이후 柳台佐, 金熙洛, 金熙周를 초계문신으로 발탁하고, 柳相祚를 동부승지에 임명하는 등 영남 남인을 적극적으로 발탁한 사실을 주목했다(「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1, 2012, 197~99쪽).

8) 『日省錄』 正祖 18년 2월 29일(丁亥).

9) 『鶴樓先生文集』 권20, 附錄, 「家狀柳相祚」.

10) 蔡濟恭은 작성한 跋文은 그의 문집에 나온다(『樊巖先生集』 권56, 跋, 「御製柳文忠公成龍閣家藏皇朝諸將書牘畫帖跋文後奉教敬跋」).

서화첩의 서문에서 자신이 壯勇營을 설치한 것은 柳成龍이 경기 지역에 군사 1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합치되고, 화성의 축성 방식도 그의 계책에 의지한 바가 많았다고 밝혔다.

일찍이 그의 遺集을 가져다 보고 수집하여 實用에 조치하려고 생각하였다. 近畿 지역의 여러 고을에 군사 1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설은 장용영의 새로운 제도와 은연중에 합치되어, 장용영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규모를 그의 설에 따라 실시한 것이 많았다. 화성을 쌓을 때 丈數를 계산하고 높낮이를 헤아리며 토산물을 바치는 거리를 따지고, 모든 담장은 일제히 우뚝하게 하며, 종횡으로 교차하는 큰길은 모두가 질서 있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城을 이룩하여 役事를 권면하려고 치는 북소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한 것도 故 相臣(柳成龍)이 남겨 준 계책에 많이 의뢰하지 않음이 없었다.¹²⁾

류이좌는 초계문신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그는 과거에 급제한 직후 승정원의 事變假注書가 되었다가 假注書, 주서로 승진하였고, 사간원 정언과 사헌부 지평을 역임하였다. 1795년(정조 19)에 주서 류이좌는 領敦寧府事 俞彥鎬에게 왕명을 전달한 후 함께 조정으로 돌아왔으며,¹³⁾ 1798년(정조 22)에 주서 류이좌는 강원도 杆城으로 가서 우의정 沈煥之에게 국왕의 傳諭를 전달하였다.¹⁴⁾ 1800년(정조 24) 3월에 그는 扶餘 현감에 부임하였고, 정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하던 중 利川에서 정조의 승하 소식을 들었다. 이후 류이좌는 1년간 素食을 하며 자신이 초계문신으로 있으면서 講製한 글과 정조의 恩諭를 묶어 『百世隕結錄』(3책)을 편찬하였다.¹⁵⁾

마지막으로 정조 이후의 사환기는 내외의 관직을 오가며 다양하게 활동한 시기다. 류이좌는 부여 현감으로 2년간 근무한 후 서울로 와서 修撰, 副校理, 獻納에 임명되었다. 1803년(순조 3)에는 北評事로 부임하여 현지의 학문을 일으켰고, 1804년에 서울로 돌아와 掌令, 부교리, 司成, 司諫, 執義에 임명되었다. 1807년에 安邊 부사가 되었고 2년 후 서울로 돌아와 사간, 교리, 부교리에 임명되었다. 1811년 홍경래 난이 일어났을 때 그는 홍문관에서 근무하였고, 1813년(순조 13)에는 홍문관 부교리로 순조의 경연에 참석하여 『小學』과 『聖學輯要』를 강의하였다. 1814년에는 玄風 현감이 되어 양친을 모시고 부임하였다가 양친의 상을 연달아 만났고, 1819년(순조 19) 孝明世子(翼宗)의 嘉禮 때에는 宣敎官으로 참여하고 정3품 通政大夫에 올랐다. 1820년에는 金海 부사로 부임하여 2년 동안 선정을 펼쳤고, 시강원 輔德이 되어 효명세자의 교육에 참여하였다.

류이좌는 1822년 이후에도 계속 관직에 임명되었지만 관리로 활동하지 않는 隱居期에 들어갔다. 1829년(순조 29)에 그는 嘉善大夫(종2품)로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승진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焚黃을 하였다. 이때 그의 부친과 모친이 추증되었고, 류이좌는 부친의 家狀과 모친의 墓誌를 작성하였다.¹⁶⁾ 이후 그는 우부승지,

11) 『日省錄』 正祖 18년 8월 30일(甲申).

12) 『弘齋全書』 권55, 雜著2, 「題文忠公柳成龍家藏皇朝諸將書畫帖」.

13) 『日省錄』 正祖 19년 1월 13일(丙申); 14일(丁酉); 15일(戊戌).

14) 『日省錄』 正祖 22년 9월 10일(庚午).

15) 『百世隕結錄』은 현재 上, 中 2책이 전해진다.

16) 『鶴樓先生文集』 권19, 「先考僉樞府君家狀」; 권16, 「先妣贈貞夫人李氏墓誌」.

예조참판, 호조참판, 同敦寧府事 등에 임명되었지만 사직하고 나가지 않았다.

만년에 류이좌는 자신의 학통을 분명히 하는 편찬 작업을 하였다. 1818년(순조 18)에 그는 채제공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고,¹⁷⁾ 1824년에는 채제공의 『樊巖集』을 간행하고 그 판각을 鳳停寺에 보관하였다. 『변암집』이 간행되는 과정을 보면, 1823년 간행을 논의할 때는 豐安君 柳相祚가 참판 金熙周와 함께 都都監이 되어 사업을 주도하였고, 1824년에는 柳相祚가 도도감, 류이좌가 도감으로 활동하며 간행 사업을 마무리하였다.¹⁸⁾

1831년(순조 31) 겨울에 류이좌는 鄭經世의 年譜를 개정할 때 그 條例를 정하여 卷頭에 두었다. 이때 류이좌는 자신이 거처하던 집의 당호를 和敬堂이라 정했으며, 그 記文에서 화경당은 柳成龍 宗家の 忠孝堂과 짝을 이룬다고 밝혔다.¹⁹⁾ 1837년(헌종 1)에 그는 도산서원에서 『退溪集』을 重刊하려 할 때 洞主로 추천되었다. 이때 그는 그전에 발간되지 못한 12권까지 수집하여 함께 간행할 생각이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1월 26일에 화경당에서 사망하였다.

1839년(헌종 5) 11월 2일, 헌종은 예조정랑 李容敏을 파견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祭文을 내렸다. 헌종은 류이좌가 李滉의 학통을 이어받고 柳成龍의 덕업을 성대하게 하였으며, 정조 대에 초계문신으로 文學과 政事에 참여하며 국왕의 칭찬을 받았고, 순조와 헌종 대에 元老(채제공)의 의리를 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국가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公議를 주도했다고 평가하였다.²⁰⁾

1802년(순조 2)에 부여 현감 류이좌는 族姪 柳懿睦(1785~1833)을 만나 과거 공부에 몰두하라고 당부하였다.²¹⁾ 오랫동안 조정의 世臣으로 있으면서 과거를 하지 않아도 家格을 유지하였지만, 이제는 과거에 합격해야 집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당부였다. 정조가 사망한 후 남인계 인사들이 대거 失勢하는 상황에서, 그는 과거 급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과거는 門戶를 유지하는 물건이다. 만약 과거가 아니면 어떻게 양반이라 하겠는가? 지금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여러 대 동안 모두 과거 학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옛날과 거리가 멀지 않아 遭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세대가 더 내려옴에 벼슬이 점차 멀어졌으니, 과거 학업에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 내가 젊었을 때 과거 공부에 힘쓰면서 마음으로 大科를 바랄 수는 없지만 小科는 그래도 힘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이렇게 급제한 것은 실로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너는 반드시 착실하게 힘써라.²²⁾

19세기에도 류이좌는 꾸준히 관리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그가 속한 남인계 인사들의 중앙 진출이 극도로

17) 『鶴樓先生文集』 권3, 疏, 「樊巖蔡文肅公伸理疏戊寅代士林作」(1818).

18) 『刊所日記』 1823년 9월 초순; 11월 8일; 22일; 1824년 1월 17일; 3월 1일; 5월 12일; 6월 21일.

19) 『鶴樓先生文集』 권10, 記, 「和敬堂記」.

20) 『柳台佐賜祭文』(1839. 11. 2).

21) 柳台佐와 柳懿睦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김명자,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河回 풍산류씨豐山柳氏의 현실 대응과 관계망의 변화」, 『국학연구』 29, 2016, 88~89쪽.

22) 柳懿睦, 『河窩日錄』(김정민 박세욱 김명자 등 옮김,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 하와일록』, 한국국학진흥원, 2015, 381쪽).

제한된 상황에서 뚜렷한 행적을 보이기는 힘들었다.²³⁾ 차남 柳祈穆은 그가 훌륭한 군주를 만나 한 시대를 경륜하려는 뜻을 가졌으나 지방관으로 뛰어난 업적을 보였을 뿐 중앙에서는 뜻의 만분지일도 펴지 못했다고 하였다.²⁴⁾

Ⅲ. 抄啓文臣의 교육 과정

1. 試講과 試製

류이좌는 6년 1개월 동안 초계문신으로 있으면서 초계문신의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다. 초계문신의 교육 과정은 試講(課講)과 試製(課試)로 구분되며, 시강의 교재는 四書三經과 『史記』이고, 시제의 문체는 論, 策, 序, 記, 說, 議, 辨, 題跋, 咨文, 奏文, 表, 箋, 啓, 詔, 制, 誥, 頒教文, 教書, 批答, 露布, 檄, 上梁文, 箴, 銘, 頌, 贊, 排律, 律詩, 古詩, 賦(律賦) 등이 있었다. 시강은 매월 2회씩 摛文院에서 실시하고, 시제는 매월 1회씩 집에서 문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²⁵⁾

정조는 여기에 더하여 국왕이 매월 1회씩 초계문신을 시험하는 親臨試講(親講)과 親臨試製(親試)를 두었고,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에는 집에서 국왕의 御製條問에 답하는 試講과 국왕의 御題에 답하는 試製를 실시하였다.²⁶⁾ 초계문신이 어제조문에 답하는 시강은 특별히 ‘經史講義’라 하였다. 이렇게 초계문신들을 시험한 결과 연속해서 서너 차례 首席이나 末席을 차지하면 賞罰을 시행하고, 매년 연말이면 12개월 동안의 성적을 종합하여 榜을 내고 상벌을 시행하였다.²⁷⁾

류이좌가 초계문신의 시강과 시제에 참가하여 상품을 받은 기록은 꾸준히 나타난다. 다음의 〈표 2〉는 그가 참가한 시강과 시제를 정리한 것이며, 試射 결과도 함께 정리하였다.²⁸⁾

〈표 2〉를 보면 초계문신의 시강과 시제는 매월 규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제때에 시행하지 못한 시강과 시제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都計劃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류이좌는 箋에서 1번, 賦에서 2번, 律詩에서 1번 등 수석을 4번이나 차지할 정도로 詩文의 작성에 뛰어났다. 그가 특별히 耳掩을 하사받은 1796년 11월의 친시는 정조가 『대학』에 나오는 明德을 心으로 볼지 性으

23) 김성우는 1800년의 仁同作變으로 영남 남인의 몰락이 시작되고, 1801년 신유박해로 기호 남인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1800년 ‘인동 작변(仁同作變)’을 둘러싼 다중의 시선들」, 『역사와 현실』 82, 2011). 그러나 김명자는 19세기에 풍산 류씨는 과거와 사환을 통한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영남의 고립을 극복하려 했다고 본다(앞의 논문, 2016, 100~102쪽).

24) 『鶴樓先生文集』 권20, 附錄, 「家狀(柳祈穆)」.

25) 『奎章閣志』 권2, 教習, 「講製」.

26) 『奎章閣志』 권2, 教習, 「親臨」.

27) 『奎章閣志』 권2, 教習, 「賞罰」.

28) 〈표 2〉는 주로 『日省錄』에 나타난 사항을 정리하였다.

〈표 2〉 柳台佐가 참가한 試講과 試製

일시	講製	성적	상품	비고
1794. 11. 23	擬本朝內閣印進御定朱書百選(箋)	2下 (수석)		10월 親試, 3개월 課講, 11월 課試
1795. 4. 7	賦 100韻	3中 (수석)	紙 筆 墨	律詩, 賦, 罰射
1795. 10. 21	還餉(策) 試射	- 5발	- 箭竹 40개	『御製還餉策問』간행 試射. 9월 親試
1795. 11. 16	虎視何雄哉(七言四韻律)			1~2월 課試의 追試
1795. 12. 26	都計劃	25分	紙 3, 筆 6, 墨 2	
1796. 11. 28	親試(已發未發之性)	2下	鼠皮 耳掩 1개	
1796. 11. 29	庸作歌(次韻)			親試의 更試, 課試
1796. 12. 10	玄圭(七言四韻律)	3下1 (수석)		12월 親試, 9월 試射, 春塘臺
1796. 12. 11	都計劃	34分	虎皮 1벌	熙政堂
1797. 3. 24	試射	3발		親試, 試射
1797. 12. 20	親試 課試 課講	32分 9分반 196分	虎皮 1벌 紙 1, 筆 3, 墨 1 紙 3, 筆 5, 墨 2	都計劃(親試, 課試, 課講)
1798. 12. 15	親試 都計劃	14分반	紙 2, 筆 3, 墨 2	
1799. 4. 7	試射(柳葉箭 8巡)	2발	箭竹 20개	
1799. 6. 15	飯牛牛亦肥(賦)	6分반	別肚紙 1권, 簡紙 30幅, 筆 5, 墨 2, 端午扇 2把, 淸暑 六和湯 1貼, 香薷散 5貼	更試(賦 排律 古詩) 6월 12일~14일
1799. 12. 13	冬至至後日初長(七言四韻律) 虞百姓等謝命契數教得免飽食煖衣則近 於禽獸(表) 魚虎(五言四韻律) 梅花若爲賦(五言絕句) 投壺(五言四韻律) 蹴鞠(七言四韻律) 六博(七言四韻律)	3下 2下 (수석)		11월 親試, 7번 비고
1799. 12. 15	親試 課試 課講	38分 22分 62分반	別肚紙 1, 肚紙 2, 筆 3, 墨 1 別肚紙 1, 肚紙 2, 筆 3, 墨 1 豹皮 1벌	都計劃(親試, 課試, 課講)

로 볼지를 질문한 문제였다.²⁹⁾ 정조는 류이좌가 未發·已發의 설을 밝히는데 훌륭했다고 칭찬하고 鼠皮로

29) 『弘齋全書』 권56, 雜著3, 「問明德抄啓文臣親試」.

정조의 질문은 『鶴棲先生文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다만 『鶴棲先生文集』에서는 후반부의 “未發曰性~欲聞的確之論” 부분이 “性有未發已發, 明德謂之心不可. 心亦有善有惡, 明德謂之性亦不可. 性豈有善惡? 而程子何以言理有善惡, 理作合字看, 或謂之

된 이엄을 하사하였다.³⁰⁾

2. 經史講義와 抄啓故寔

류이좌는 정조와 초계문신이 問答을 주고받는 經史講義와 抄啓故寔에도 참여하였다. 경사강의는 정조가 내린 條問에 초계문신이 일일이 답변하는 것으로, 류이좌는 『중용』의 서문과 篇題, 본문 33장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中庸講義에 참여하였다. 또한 정조는 1794년에 선발된 초계문신에게 『대학』, 『朱子大全』, 國朝故事(「龍飛御天歌」, 『國朝寶鑑』)를 대상으로 하는 초계고식을 실시하였다. 이는 초계문신이 먼저 대상 서적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정조가 이를 읽고 批答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사강의가 경서와 역사서(『資治通鑑綱目』)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라면, 초계고식은 대상 서적을 읽으면서 현실적인 經世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정조 대의 초계문신은 1794년에 24인, 1795년에 6인의 문신을 선발한 이후에는 1800년에 14인의 문신을 선발할 때까지 추가 선발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류이좌가 초계문신으로 활동했던 1794~1800년에는 그가 포함된 甲寅選(1794년) 초계문신이 집중적으로 수련을 받았다. 다음의 <표 3>은 류이좌가 참여한 경사강의와 초계고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柳台佐가 참여한 經史講義와 抄啓故寔

분류	과목	시행	초계문신	선발
經史講義	中庸講義	1797	金近淳 李存秀 趙萬元 徐俊輔 曹錫中 李勉昇 柳台佐 洪樂浚 柳遠鳴 金熙洛 具得魯 宋冕載 申 絢 姜浚欽 洪命周 黃基天 李東萬 金履載 金處巖 李英發 洪奭周	1794 1790 1795
			金近淳 李存秀 柳台佐 金熙洛 具得魯 姜浚欽 洪命周 李英發 洪奭周 金啓溫 李弘謙	1794 1795
			金近淳 李存秀 金熙洛 柳台佐 具得魯 申 絢 姜浚欽 洪命周 金履載 李英發 洪奭周 金啓溫 李弘謙	1794 1790 1795
抄啓故寔	大學	1799	金近淳 李存秀 柳台佐 金熙洛 具得魯 申 絢 姜浚欽 洪命周 金履載 李英發 洪奭周 金啓溫 李弘謙	1794 1790 1795
			金近淳 李存秀 柳台佐 金熙洛 具得魯 申 絢 姜浚欽 洪命周 金履載 李英發 洪奭周 金啓溫 李弘謙	1794 1790 1795
			金近淳 李存秀 柳台佐 金熙洛 具得魯 申 絢 姜浚欽 洪命周 金履載 李英發 洪奭周 金啓溫 李弘謙	1794 1790 1795

‘記錄之錯’, 此說何如? 心固有出入, 而說心者或言其發與未發, 又何意歟?’로 되어 있어, 글자의 出入이 있다(권8, 「大學問對抄啓應製」).

30) 『鶴樓先生文集』 권8, 「大學問對抄啓應製」(1796).

“批曰. 發揮明德之未發已發, 奇哉奇哉. 始信嶠南學者之實地著力.”

정조의 칭찬은 『正祖實錄』에도 나온다(권45, 正祖 20년 11월 己巳(28일)).

〈표 3〉을 보면 대부분 1794년에 선발된 초계문신이고, 1790년에 선발된 金履載와 1795년에 선발된 李英發, 洪奭周, 金啓溫, 李弘謙이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류이좌가 참여한 경사강의와 초계고식은 정조와 류이좌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³¹⁾

IV. 국가적 행사 참여와 서적 편찬

1. 국가적 행사의 참여

규장각 초계문신은 국가적 행사에 참여한 후 국왕과 시를 酬唱하는 경우가 많았다. 류이좌는 초계문신의 자격으로 네 차례 국가 행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그가 참석한 행사는 1795년(정조 19) 6월 18일 창경궁 明政殿에서 거행된 慈殿(혜경궁) 회갑 進饌,³²⁾ 1796년 3월 2일 皇壇(大報壇)에서 거행된 제향,³³⁾ 1796년 6월 18일 迎春軒에서 열린 혜경궁 생신 進饌,³⁴⁾ 1800년(정조 24) 2월 1일 왕세자(순조)의 冠禮와 冊禮 행사였다.³⁵⁾

1796년 3월의 황단 제향에는 祭官 43인을 비롯하여 명나라 사람으로 조선에 이주한 李如松의 후손 3인, 李如梅의 후손 4인, 黃功의 후손 6인, 조선 忠良人인 金應河의 후손 9인, 洪翼漢의 후손 3인, 李舜臣의 후손 23인 등 총 1,057인이 참여하였고, 제향이 끝난 후에는 정조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바쳤던 성대한 행사였다.³⁶⁾ 이날 정조는 숙종과 영조가 황단 제향을 거행할 때 지은 志感韻을 따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³⁷⁾ 정조는 청나라가 들어선 후 조선에서만 명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상황에서 萬折必東의 정성을 따르겠다고 노래했다.

황제가 東巡하심을 어슴푸레 보는 듯해라
사모하는 壇木에 왕의 봄을 붙였네.
산하의 북쪽 끝까지 諸夏가 무너졌으니
우리 東國만 희생과 술의 제향을 드리네.
수십 권의 춘추 의리는 묵혀진 지 오래인데

31) 柳台佐가 참여한 經史講義와 抄啓故寔은 『弘齋全書』에서는 권82(經史講義19○中庸3), 권129(故寔1, 「大學」), 권131(故寔3, 「朱子大全 二」), 권134(故寔6, 「國朝故事」), 『鶴棲先生文集』에서는 권5~7(「中庸講義條對抄啓應製」), 권8(「大學故寔抄啓應製」, 「朱子大全故寔抄啓應製」, 「國朝故寔抄啓應製」)에 수록되어 있다.

32) 『日省錄』 正祖 19년 6월 18일(丁酉).

33) 『日省錄』 正祖 20년 3월 2일(戊申).

34) 『日省錄』 正祖 20년 6월 18일(壬辰).

35) 『日省錄』 正祖 24년 2월 1일(甲申).

36) 『日省錄』 正祖 20년 3월 2일(戊申).

37) 『正祖實錄』 권44, 正祖 20년 3월 戊申(2일).

삼천리 鰐域(조선)에서 冠巾을 보전하였네.
 재계와 제복 엄숙히 하고 정화수를 살피니
 萬折必東의 남은 정성을 힘써 따르려다.³⁸⁾

이날 초계문신으로 참석한 副正字 류이좌는 정조의 시에 화답하여 다음의 시를 지었다. 정조의 대명여리를 따라 황단 제향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해마다 東藩에서 報恩의 제사를 직접 하시니
 시절이 거듭하여 執徐(1796)의 봄이 되었다.
 백년의 禮樂이 중국에서 끊어졌으나
 七廟의 의례를 동방에서 드리네.
 북극 별들은 羽衛(국왕의 의장)에 임하였고
 동으로 흐르는 江漢은 衣巾을 씻었도다.
 雲韶(순 임금 음악)의 아홉 곡조 정색하고 뵈는 듯
 국왕의 마음을 영원히 따르리.³⁹⁾

1796년 6월의 진찬은 62회 생신을 맞은 혜경궁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1년 전 혜경궁 회갑 때 창경궁 명정전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던 정조는 이때에는 영춘헌에서 혜경궁에게 表裏를 올리는 행사를 거행했다. 이 행사에는 7세가 된 元子(순조)도 唐髻에 靑袍, 黑靴자를 갖추고 참여하였다. 행사 후 정조는 內殿에서 혜경궁께 음식을 올렸고, 행사에 참여한 신하에게도 음식을 내렸다.

이 날 정조는 1795년 윤2월에 華城行宮의 洛南軒에서 열린 회갑연에서 지었던 시의 운자를 따서 시를 지었고, 규장각 閣臣, 승지, 史官, 2품 이상의 문신과 무신에게 廣進詩를 지으라고 명령하였다.⁴⁰⁾ 다음은 정조의 시로 해마다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는 잔치를 열겠다고 노래했다.

慈宮의 많은 경사가 예전보다 빛나서
 綵衣를 입고 춤추며 獻壽筵을 거듭 여네.
 탁 트인 집에 봄을 맞아 봄이 늙지 않으리니
 삼가 이 모임을 해마다 가져야겠네.⁴¹⁾

이날 承文院의 權知副正字 류이좌는 정조의 시에 화답하여 다음의 시를 지었다. 元子(순조)가 할머니의 생신에 참석한 것을 축하하고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이었다.

38) 『弘齋全書』 권7, 詩3, 「皇壇親享日, 敬次兩朝御製韻」(1796).

39) 『鶴棲先生文集』 권1, 詩, 「進皇壇親享, 次兩朝御製韻奎章閣講製抄啓時」.

40) 『正祖實錄』 권44, 正祖 20년 6월 壬辰(18일).

41) 『弘齋全書』 권7, 詩3, 「迎春軒, 奉觴志喜, 用洛南前韻」(1796).

장수하신 모후 앞에서 元良을 안으니
 낙남헌의 和氣가 이 자리에 거뒀네.
 신하들은 萊衣曲을 다투어 연주하고
 盤泰의 상서로움으로 만수무강을 송축하네.⁴²⁾

이상에서 보듯 초계문신 류이좌는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여 정조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지었다.

2. 국가적 편찬 사업과 서적 배포

정조는 1777년(정조 1)에 국립 출판사에 해당하는 校書館을 규장각에 소속시키고 다수의 활자를 제작하여 국가적 편찬 사업을 전개하였다.⁴³⁾ 정조는 규장각 각신과 초계문신을 실무진으로 참여시켜 서적의 편집, 교정, 인쇄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서적이 출판되면 규장각 각신과 초계문신에게 배포하였다.

초계문신 류이좌는 국가적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고, 규장각에서 출판된 많은 서적을 배포 받았다. 그는 1794년 4월에 초계문신이 되면서 講製 규정을 정리한 『文臣講製節目』을 하사받았다. 류이좌는 金熙洛(1761~1803)과 함께 이 책을 하사받고 감격하여 다음의 시를 지었다. 국왕이 지도하는 초계문신에 선발되어 '奎章之寶'가 선명하게 찍힌 서적을 받으니,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家寶가 될 것이라 노래한 시였다.

蓬萊 瀛洲에서 어떻게 초야의 신하를 생각하고
 사심 없이 時雨를 내리시니 사물마다 새롭네.
 하늘의 붉은 구름이 궁궐에 드리웠고
 규장각 서책들은 관리들을 경계하네.
 文과 武 겸했으니 규모가 원대하고
 달마다 열흘마다 직접 점검하시네.
 奎章之寶 글자가 환하게 빛나니
 오랜 세월 지나도 자손의 보배 되리.⁴⁴⁾



류이좌는 규장각에서 이뤄지는 편찬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였다. 1797년(정조 21)에 그는 『朱書百選』, 『八子百選』, 『史記英選』의 교정에 참가하였다. 이때 정조는 규장각에 설치된 鑄字所에 이 책들을 내려 자신이 정한 句讀를 달고 각신과 승지, 초계문신에게 교정을 보게 하였으며, 류이좌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정조가 정

42) 『鶴樓先生文集』 권1, 詩, 「廣進御製迎春軒奉觴志喜, 用洛南軒前韻[奎章閣講製抄啓時]」.

43) 『群書標記』를 보면, 정조 대에 御定書 89종 2,490권과 命撰書 64종 1,501권을 합하여 총 153종 3,991권의 서적이 편찬되었다(『弘齋全書』 권179~184).

44) 『鶴樓先生文集』 권1, 詩, 「祇受內賜節目一冊, 與金叔明熙洛, 感賦一律」.

金熙洛은 1792년(정조 16)에 정조가 陶山書院에서 실시한 寶興科에서 선발되었으며, 1794년에 류이좌와 함께 抄啓文臣으로 선발된 인물이었다.

한 구두를 달고 교정하는 작업은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⁴⁵⁾ 얼마 후 정조는 주자소에 『朱子語類』를 내려 1769년(영조 45) 桂坊의 신료에게 정하게 했던 구두를 옮겨 적게 하였다. 이에 규장각 각신과 초계문신이 참여하였고, 류이좌는 安鼎福이 작성한 『주자어류』 제26권의 구두와 懸吐를 옮겨 적고 교정하였다. 이 사업은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다.⁴⁶⁾

1797년 6월에 류이좌는 御定書を 校閱, 監印, 繕寫한 공을 인정받아 龍柱扇香 1개, 淸心丸 3환, 濟衆丹 10정을 하사받았다. 이때 규장각 각신과 초계문신들이 교정한 서적에는 『五經百選』(5책), 『朱書百選』(3책), 『八子百選』(3책), 『史記英選』(4책), 『陸奏約選』(2책), 『律英』, 『杜律分韻』(2책), 『陸律分韻』(13책), 『杜律句騰』(2책), 『陸律句騰』(8책), 『陸律分韻』草本(2책), 『唐詩題海』(103책), 『春秋左氏傳』(10책), 『鄉禮合編』(2책), 『五倫行實』(4책) 등이 있었다.⁴⁷⁾

류이좌는 정조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箋文을 작성하였다. 그는 정조가 1794년에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려고 老人 75,100여인의 나이를 합하여 5,898,200여 歲가 되는 것을 정리한 『人瑞錄』에 대한 箋文을 작성하였다.⁴⁸⁾ 또한 그는 1797년에 간행된 『향례합편』에 대한 箋文을 통해 정조가 삼대의 풍속을 회복하려고 鄉飲酒禮와 鄉約 제도를 정리한 이 책을 편찬하였고, 자신도 책을 간행하는 末席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⁴⁹⁾

류이좌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서적은 1797년(정조 21)에 간행된 『五倫行實圖』(4책)였다. 류이좌는 정조가 이 책을 간행할 때 주자소에 근무한 인연으로 1권을 하사받았다. 그의 양친은 이 책을 소중히 다루며 자손들에게 교육시키게 하였으나 아쉽게도 장녀인 崔室이 빌려간 후 제1책을 잃어버렸다. 1820년(순조 20)에 김해 부사로 부임한 류이좌는 관아에서 『오륜행실도』의 완질을 발견하고, 晝書를 잘 하는 사람에게 제1책에 있는 ‘奎章之寶’와 命除之書를 그대로 그려서 채우게 하였다. 이때 류이좌는 나머지 3책의 표지도 교체하려 했다가 아우(柳奭祚)의 글씨라 그대로 두었다.⁵⁰⁾

다음의 <표 4>는 초계문신 류이좌에게 배포된 규장각 도서를 정리한 것이다.⁵¹⁾

<표 4> 류이좌에게 배포된 서적 목록

서명	시기	內賜記	근거	비고
文臣講製節目		1794. 4.	도서	檢校直閣 徐
御定朱書百選	1794. 12.	1794.	행장, 도서	陶山書院, 玉山書院 1건 檢校待敎 沈

45) 『日省錄』 正祖 21년 4월 4일(甲戌).

46) 『日省錄』 正祖 21년 5월 22일(辛酉).

47) 『日省錄』 正祖 21년 6월 24일(癸巳).

48) 『鶴樓先生文集』 권11, 箋, 「擬本朝『人瑞錄』 老人七萬五千一百餘人, 進壽五百八十九萬八千二百歲箋[抄啓應製].」

49) 『鶴樓先生文集』 권11, 箋, 「擬本朝鑄字所進鄉飲儀式鄉約條例箋[抄啓應製].」

50) 『鶴樓先生文集』 권9, 序, 「內賜五倫行實圖」.

柳台佐의 아우 柳奭祚(柳奭佐)는 1768년(영조 44)에 태어나 1803년(순조 3)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故人이었다.

51) 현존 도서의 內賜記는 한국국학진흥원, 『풍산류씨 화경당(북촌택)], 2014를 참조하였다.

서명	시기	內賜記	근거	비고
正始文程		1795. 4.	도서	檢校直閣 李
御製還餉策問	1795.	1795. 9. 8	도서	
御定奎章全韻	1796. 8. 11		일성록	
御定史記英選	1796. 12. 25	1796.	일성록	
鄉禮合編	1797. 6. 2		일성록	
御定陸奏約選	1797. 윤6. 12	1797.	일성록	
五倫行實圖	1797. 7. 20		일성록	
杜律分韻	1798. 7. 22	1798. 7.	일성록, 도서	檢校直提學 李
太學銀杯詩集	1799. 3. 28	1799. 3.	일성록, 도서	直提學 李
雅誦	1799. 10. 3		일성록	
春秋左氏傳	1799. 11. 15		일성록	조운형 번각본
濟衆新編	1799. 12. 11		일성록	
御定杜陸千選	1799. 12. 28		일성록	

V. 朱子學과 退溪 학설의 존중

류이좌는 초계문신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주자학과 퇴계 학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먼저 정조는 중용강의에서 주자의 학설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류이좌는 이를 지지하고 준수하였다. 다음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정조 : “宗器에 대해 鄭玄의 주석에서는 宗廟의 祭器라 하고, 『中庸章句』에서는 先世에 소장한 그릇으로 赤刀나 大訓 같은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左傳』에서 말한 ‘宗器를 중시한다.’는 것이나 『國語』에서 말한 ‘그 官에서 宗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모두 祭器로 말한 것이니, 정현의 설은 본래 근거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朱子가 반드시 지금의 해석으로 고친 것은 어째서인가?”

류이좌 : “宗器는 祭器라고 한 鄭玄의 설은 未安합니다. 『周禮』에서 ‘天府는 祖廟에서 守藏한 것을 관장한다.’고 하였으니 국가의 玉璽大寶器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大祭가 있으면 꺼내어 진열해 놓으니 그저 國容의 미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先王께서 평소애 살펴보신 手澤이 있기 때문에 진열하여 그 분이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중략)…『좌전』과 『국어』에서 비록 祭器라 하였으나 주자가 반드시 先世에 보관했던 重器라 한 것은 先王 禮意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⁵²⁾

정조 : “朝聘以時’에 대해 『중용장구』는…(중략)…대개 『禮記』 「王制」 편과 「聘義」 편의 글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왕제」 편의 글은 모두 古禮를 잡다하게 열거하여 반드시 周家の 典禮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聘義」 편에서 말한 것은 또 諸侯들이 서로 방문하는 禮이니 天子에게 朝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朱子가 이것에 의거하여 해석한 것은 과연 經文의 本旨에 어긋나는 것이 없겠는가?”

류이좌 : “經傳에 수록된 것이 이처럼 서로 어긋나니 지금 갑자기 折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朱夫子가 이미 「王制」 편의 글로 孔子가 哀公에게告한 말을 해석하였으니, 朝聘의 禮는 반드시 「왕제」 편의 말이 定論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鄭玄과 孔穎達은 子大叔(春秋 시대 鄭나라 大夫)의 말에 근거하여, 「왕제」 편의 이 말에 文公이 霸道로 다스리던 것이 섞였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孔子께서 이미 文王과 武王의 정치로 그 군주에게 告했는데 朱子가 무엇 때문에 王朝의 舊典을 버리고 伯國의 제도를 근거로 말했겠습니까? 이는 周家가 다스리던 것인데 子大叔를 빌려와 말하였으니 漢儒들이 經을 더럽힌 잘못이 이와 같습니다.”⁵³⁾

정조 : “이 책(『중용』)에서 章을 나눈 것은 의심할만한 것이 많다. …(중략)…章을 나누고 句를 분석하는 것은 예로부터 箋註家들이 조심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더구나 朱子처럼 한 치의 틀림도 없는 분명한 분이 어찌 여기에 조금이라도 미진한 것이 있겠는가? 반복하여 연구해 봐도 끝내 要領을 얻을 수 없으니 여러 君子들과 한 번 강론해 보고 싶다.”

류이좌 : “이 책의 章을 나눈 예에 대해 저의 소견으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저 朱子の 訓을 尊信하고 發明할 뿐입니다. …(중략)…게다가 夫子(공자)의 말을 子思가 인용하고 자사의 말을 朱子가 해석하였으니, 어찌 조금이라도 미진한 뜻이 그 사이에 있겠습니까? 朱子の 訓을 그르다 하고 억지로 별도의 文호를 세우려는 것은 결단코 따를 수 없습니다.”⁵⁴⁾

이상에서 정조는 鄭玄 같은 漢儒의 학설에는 淵源이 있으므로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주자가 『중용』의 원문을 章과 節로 細分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정조는 漢學의 성과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중용장구』에 있는 주자의 해석을 모두 따르지 않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류이좌는 漢儒의 견해는 잘못된 것으로 經의 本旨을 어지럽혔고, 『중용』은 孔子의 발언을 子思가 인용한 것을 朱子가 제대로 해석하였으므로 주자의 설을 믿고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朱子の 訓을 尊信하고 發明할 뿐이라”는 발언은 그가 주자학을 존중하는 학자였음을 보여준다.

류이좌는 주자의 학설에는 변화가 있으며 晩年の 주장이 定論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조 : “朱子가 中和를 논한 것은 그 말을 여러 번 바꾸었다. …(중략)…그의 초년과 만년의 차이와 옳고 그름의 까닭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가?”

52) 『鶴樓先生文集』 권7, 「中庸講義條對3抄啓應製」(1797). 「제19장」 #2.

“제19장」 #2”이란 표현에서 “제19장”은 朱子가 『중용』 본문을 33章으로 구분한 것에서 제19장에 해당하며, “#2”는 정조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류이좌가 답변한 것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함.

53) 『鶴樓先生文集』 권7, 「中庸講義條對3抄啓應製」(1797). 「제20장」 #3.

54) 『鶴樓先生文集』 권7, 「中庸講義條對3抄啓應製」(1797). 「제26장」 #1.

류이좌: “朱夫子가 中和를 논한 것은 과연 新說과 舊說이 다릅니다. …(중략)…聖上께서 물으신 것에서 제1조와 제2조는 초기와 중기의 학설이고 제3조는 후기의 학설입니다. …(중략)…뒷날 王陽明이 朱夫子가 폐기했던 초기의 학설을 주워 모아 ‘(주자가) 未發이 發의 主宰라 하니 바로 發했으나 未發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시기를 말하여 옳지 않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렇게 망령되었습니까. 55)

정조: “朱夫子가 일찍이 中和의 뜻을 논하여 ‘사람이 사는 것은 모두 已發인데, 已發일 때 未發이 그 사이에 존재하니 費隱과 비슷하다.’고 하였고, 또 『朱子語類』에서는 ‘和 안에 費가 있고 隱이 있으니, 中을 隱이라 하고 和를 費라 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전후의 학설이 이처럼 다르니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가?”

류이좌: “朱夫자의 中和에 대한 舊說은 진실로 晩年에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中和를 나누어 動靜으로 고쳤습니다. 그 때문에 『朱子語類』에는 ‘中을 隱이라 하고 和를 費라 하면 안된다.’는 학설이 있으니 그의 잘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56)

류이좌: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되 그 보람을 미리 기대하지 않으면 必有事焉而勿正 마음은 바로 술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못에서 뛰는 것 鳶飛魚躍과 같이 活潑하다는 것은 朱子의 舊說이고,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되 마음에 일정한 主見이 있는 연후에 道體의 妙를 볼 수 있다’는 것은 朱子의 新說입니다. …(중략)…『中庸或問』의 논의가 이러한 뿐만 아니라 초년의 설과 만년의 설이 다르니 만년의 설을 定論으로 삼아야 합니다.” 57)

이상에서 정조와 류이좌는 주자의 中和 해석이 초년, 중년, 만년에 차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류이좌는 주자가 만년에 주장한 학설이 定論이므로 이를 따라야 하며, 王陽明이 주자의 초기 학설을 바탕으로 주자를 비판한 것은 왕양명의 잘못이라고 보았다. 류이좌의 이러한 견해는 양명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정조: “여기서 ‘天命과 率性是 道心을 말한다.’고 하였다. 性和 心이 과연 이처럼 구별이 없다면 王陽明의 ‘心即理 心即道’라는 학설에 대해 또한 무엇 때문에 한꺼번에 일어나 비난한 것인가? 대저 江西學派(王陽明 학파)가 頓悟說에 깊이 빠져 끝내 葱嶺의 氣味를 면하지 못한 것은 바로 心を 性이라 여긴 데 있다. 羅整菴(羅欽順) 등의 학자들이 저들의 그릇됨을 크게 배척한 것도 心和 性에 분별이 없다고 한 것일 따름이다.”

류이좌: “道心惟微는 舜과 禹의 말이고 ‘天命率性’은 子思의 말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旨訣은 전후가 하나이며, 오직 紫陽(주자)만이 이를 밝혀 그 뜻을 ‘子思의 이런 訓은 바로 舜과 禹의 이런 訓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이것으로 心이 性이라는 논의와 비교한다면 未安합니다. …(중략)…위에서 이미 道는 性命에 근원하였다고 하였으니 심과 성의 구별은 이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것을 王陽明 무리의 心即理 心即道란 학설과 비교하면 서로 거리가 멀 뿐만이 아닙니다.”

55) 『鶴樓先生文集』 권5, 「中庸講義條對1[抄啓應製]」(1797). 「제1장」 #17.

56) 『鶴樓先生文集』 권6, 「中庸講義條對2[抄啓應製]」(1797). 「제12장」 #2.

57) 『鶴樓先生文集』 권6, 「中庸講義條對2[抄啓應製]」(1797). 「제12장」 #7.

정조: “尊德性和 道問學은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가?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가? 陸象山이 尊德性 세 글자로 별도의 門戶를 세우고 講學을 모두 폐지하자 한 번 변하고 두 번 변하면서 거리가 더욱 멀어졌고, 江西派에 이르러 거듭하여 頓悟의 說에 깊이 빠져 朱子와 陸象山의 학문이 거의 천하를 半分하였다. 이를 調停하는 논의를 한 사람들은 ‘朱子는 道問學의 뜻이 많고 陸子(陸象山)는 尊德性의 뜻이 많다.’고 하였다. 주자의 가르침은 본래 窮理에 힘쓰지만 대번 ‘窮理 이전에 반드시 먼저 本源을 涵養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尊德性의 공부를 빠뜨린 적이 있었는가? 저 陸氏의 이른바 居敬이라는 것은 오직 簡易함을 숭상하고 부질없이 사색하는 것을 먼저 못하니 이것을 存養이라 할 수 있겠는가?”

류이좌: “陸氏는 오직 簡易함을 숭상하고 그저 虛靜을 일삼았으니 이미 道問學이 아니고 尊德性에도 능하지 못합니다. 朱子는 讀書 窮理하여 本原을 涵養하였으니 이미 道問學을 이루었고 尊德性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학이고 저것은 불교이며, 이것이 정이고 저것은邪이며, 이것은 公平하고 저것은 邪狠하니, 많이 분별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⁵⁸⁾

이상에서 정조와 류이좌는 공통적으로 陸象山과 王陽明의 학설을 비판하였다. 또한 류이좌는 주자는 道問學과 尊德性을 모두 이뤘지만 陸象山은 어느 것도 이루지 못했고, 王陽明의 학설은 강서학과에 이르러 불교에 빠졌다고 비판하였다.

류이좌는 주자의 本旨를 제대로 밝힌 학자는 李滉이라 보고 그의 학설을 자주 인용하였다.

정조: “人心과 道心이 儒家의 논란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다....(중략)...우리나라 유학자에 이르러 그 학설이 더욱 번잡해졌다. 人心은 氣가 發하고 理가 乘하며 道心은 理가 發하고 氣가 隨한다는 것은 退陶 李滉의 학설이고, 人心과 道心이 모두 氣가 發하고 理가 乘하며, 發하는 것은 氣이고 發하게 하는 것은 理라는 것은 栗谷 李珥의 학설이다....(중략)...오늘날에 이르러 四端 七情이니 人心 道心이니 하는 변론들이 아득히 안개 낀 바다와 같아 끝까지 이치를 따져 볼 수도 없게 되었다. 과연 반복하여 토론하면서 하나하나 상세히 상고할 수 있겠는가?”

류이좌: “대개 不相雜 不相離하는 것이 理와 氣인데 渾淪說과 分開說이 있어 어느 한쪽을 폐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李文純(李滉)은 ‘理와 氣는 본래 不相雜 不相離한다.’고 하였습니다. 분리하지 않고 말하면 혼연히 一物이 되어 그것이 不相雜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하지 않고 말하면 판연히 二物이 되어 그것이 不相離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渾淪說에 나아가 分開說을 곁하여 말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는 文純이 創始한 말이 아니며, 실제로 위에서 말한 (形氣의 私慾에서) 생겨난 것도 있고 (性命의 올바른 것에서) 근원한 것도 있다는 訓을 따른 것입니다.”⁵⁹⁾

정조: “말하는 사람들이 이 章의 위아래 2節은 모두 孔子의 말이라 하였다....(중략)...그러나 經文을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위의 1節은 바로 『논어』에 있는 ‘君子는 義에 밝고 小人은 利에 밝다.’는 것과

58) 『鶴樓先生文集』 권7, 「中庸講義條對3[抄啓應製]」(1797). 「제27장」 #4.

59) 『鶴樓先生文集』 권5, 「中庸講義條對1[抄啓應製]」(1797). 「中庸序」 #2.

말뜻이 비슷하고, 아래의 1節은 위 글의 남은 뜻을 거듭 풀이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聖人の 말은 淨潔하고 簡奧하니,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그 뜻을 풀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의 1절은 孔子의 말로 보고 아래의 1절은 子思의 말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가?”

류이좌 : 이 章은 위의 2句와 아래의 4句가 모두 孔子의 말입니다. 李文純(李滉)이 말하길 ‘君子之中庸 이하는 朱子도 모두 孔子의 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子思의 말이라 하지 않았다. 蔡沈의 말도 그저 하나의 說이니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⁶⁰⁾ 하나의 章 안에 두 聖人의 말이 있었다면, 朱子가 章句를 訓釋할 때 반드시 ‘愚而自用’장처럼 節을 따라 分別하였을 것입니다.⁶¹⁾

이를 보면 류이좌는 이황과 이이의 理氣 논쟁에서 이황의 설을 지지하고, 이황의 학설이 주자의 定論이며 특히 이황은 주자 만년의 定論을 따랐다고 주장하였다. 주자의 학설은 이황이 제대로 밝혔고, 자신은 이황의 학설을 따라 주자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주자에서 이황을 거쳐 자신에게 이어진다는 學統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조도 朱子書를 잘 드러낸 것은 이황이며 『朱子書節要』를 보면 이황이 주자학의 忠臣임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⁶²⁾ 류이좌는 이러한 정조에게 답하면서 이황의 학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류이좌는 주자학을 비판하는 명·청대의 학술을 강하게 비판하고 그 책을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에서 주자학을 헐뜯는 王陽明, 陳獻章, 毛奇齡의 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단의 학설을 근절시켜야 聖人の 책을 밝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朱子書는 바로 孔子·子思·孟子·程子の 책입니다. …(중략)…그렇지만 신이 듣건대 明·淸 이래로 王陽明, 白沙(陳獻章), 毛奇齡이 朱子書를 거짓으로 무함하였으며, 근자에 해동으로 流傳되어 閭巷에서 경박하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다투어 책을 외워서 물든 자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聖學이 밝게 담겨져 해가 중천에 떴을 때와 같으니, 어찌 이런 문자를 상자 속에 숨겨두고 朱色을 해치는 紫色, 곡식의 싹을 해치는 잡초가 되도록 하겠습니까? 반드시 널리 수색하고 찾아 불덩이에 던져 片言隻字라도 후세에 전해지지 않게 한 후에야, 이단의 설이 영원히 뿌리 뽑히고 옛 성인들의 책이 내세에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⁶³⁾

정조는 주자학을 비판하는 서적을 불태우자는 건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조는 정학인 주자학을 밝히면 邪學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王陽明이나 毛奇齡 같은 사람도 주자학이란 正學의 세계로 복귀했을 것으로 보았다.

60) 『退溪先生文集』 권40, 書, 「答竊姪問目[中庸]」.

“君子之中庸一節, 蔡氏以爲子思釋孔子之言, 然否? ‘君子之中庸’以下, 朱子亦以爲孔子之言, 故不云子思之言. 蔡氏之說, 特備一說, 未必爲是.”

61) 『鶴樓先生文集』 권6, 「中庸講義條對2[抄啓應製]」(1797). 「제2장」 #5.

62) 『鶴樓先生文集』 권8, 「朱子大全故憲[抄啓應製]」(1799).

“批曰. 實是表章朱子書者, 李文純也. 觀於『節要』, 眞所謂朱門之忠臣. 溪門『講錄』之手書與否, 今何足辨釋.”

63) 『鶴樓先生文集』 권8, 「朱子大全故憲[抄啓應製]」(1799).

우리 道가 행해지고 정학이 밝아져 온 세상 사람이 집집마다 洙泗를 배우고 程朱를 배우면, 저 誠淫 邪遁한 설은 바로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굳이 그 책을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겠는가? 王陽明의 학문은 참으로 추하고 어긋난 견해지만, 그 자신은 세상에 드문 호걸이었다. 만약 朱夫子 시대에 있었다라면 반드시 창을 버리고 명령을 따랐을 것이며, 毛奇齡도 有庫(舜이 자신을 죽이려던 이복동생 象을 봉해 준 지역)에게 투항하게 하여 斯文을 바로잡았을 것이다.⁶⁴⁾

이를 보면 류이좌는 주자와 이항의 학설을 正學으로 존중하고 충실히 따랐지만, 정조는 주자학을 인정하면서도 명·청의 새로운 학문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Ⅵ. 經世 방안의 건의

류이좌는 정조와 문답을 주고받는 가운데 국가를 경영할 經世 방안을 건의하였다. 정조가 초계문신의 강제를 실시한 이유가 이들의 학문을 단련시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였고,⁶⁵⁾ 초계문신의 급선무는 實心으로 實學을 하고 實事를 실천하는 일이었다.⁶⁶⁾ 류이좌는 정조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면서 정조의 통치 방식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정조가 학문을 연마하고 서적을 출판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전하께서 讀誦하는 공부에 밤낮으로 더욱 독실하고 편집하는 일에 좌우로 應酬하십니다. 承弼의 직책에는 廟堂이 있고 黼黻의 직임에는 내각이 있습니다. 큰 강령을 總理하는 외에는 모든 일을 좌우의 신하들에게 맡겨 수고로워야 할 신하와 편안해야 할 임금의 입장이 뒤바뀌는 일이 없게 하시면, 심신을 수습하고 건강을 보존하는 방도에 만의 하나라도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⁶⁷⁾

근래 전하께서 批點과 圈點을 찍어 초록하고 選集하는 일은 글의 깊은 맛과 뜻을 섭취하여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撮要를 만들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후세에 君師의 책임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혹 전하께서 깊이 연마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고 그저 간편함만 좋아한다면, 張南軒이 仁을 말한 것을 類聚하여 학자들이 지름길을 좋아하고 速成을 바라는 마음을 열었던 일이 없겠습니까?⁶⁸⁾

64) 『鶴樓先生文集』 권8, 「朱子大全故憲[抄啓應製]」(1799).

65) 『弘齋全書』 권129, 故憲1, 「大學」.

“予之設置講製, 蓋欲使諸文臣, 澡行礪躬, 劬書績文, 爲國家需用.”

66) 『弘齋全書』 권129, 故憲1, 「大學」.

“予之心, 卽爾等之心. 爾等之心, 卽一國之心. 一國之心, 卽萬古之心. 以實心講實學, 以實學行實事, 卽今日之急先務.”

67) 『弘齋全書』 권131, 故憲3, 「朱子大全 二」.

68) 『鶴樓先生文集』 권8, 「朱子大全故憲[抄啓應製]」(1799).

이를 보면 류이좌는 정조가 밤낮으로 독서에 열중하고 서적을 편집하는 일에 바빠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국왕은 큰 강령만 지휘하고 실무는 廟堂과 內閣의 관리에게 맡겨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조는 經書나 朱子書의 選本을 많이 편찬했는데, 류이좌는 후대 국왕이나 학자들이 간편하고 쉬운 길만 찾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정조는 『尙書』 「無逸」편에서 보듯 국왕은 편안할 겨를이 없는 존재이며, 선본을 편찬하는 것은 분량이 많은 책을 여러 번 볼 수 없어 時宜에 맞는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정조는 류이좌의 지적이 훌륭하다고 鹿皮 1領을 상으로 주었다.⁶⁹⁾

류이좌는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장차 국왕이 될 元子 교육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라고 건의하였다. 정조는 숙종의 선례를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범을 보이고, 세자 책봉례와 성균관 입학례를 앞둔 원자를 위해 훌륭한 스승을 구하라는 요청이었다.

우리 숙종대왕께서는 聖學이 깊고 밝아 여러 왕 중에서 뛰어나셨습니다. 明明德과 新民의 공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七情의 箴이 있고 四勿의 題가 있습니다. …(중략)…바라건대 전하께서는 成湯의 盤銘의 뜻을 따라 이루시되 聖祖(숙종)께서 日新堂이라 편액하신 일을 따르시어, 이미 새로워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 새롭게 하시고, 이것으로 元良을 教諭하는 방도로 삼으소서.⁷⁰⁾

지금 講學廳에 뽑힌 輪對官을 보니 文蔭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책봉하고 입학하는 성대한 의례가 며칠이 안 되어 거행될 것입니다. 반드시 庭陞에 있는 賢人을 두루 시험하고 시골에 있는 선비를 널리 물어서, 정밀하게 가리고 가려 좌우에서 함께 거처하는 직책을 준 다음에야, 叡德이 더욱 새로워지고 교화와 마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동방의 억만년 무궁한 사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⁷¹⁾

류이좌는 규장각과 성균관의 교육에도 불만이 있었다. 그는 당시 교육이 心性을 수양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아 四書나 『심경』, 『근사록』 같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규장각 교육도 詩와 賦는 剽竊하고 史書와 문집은 記誦을 주로 하여, 역시 심성을 함양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성균관 유생에게 經傳과 程朱의 遺集을 익히고, 매일 혹은 매 10일마다 講誦하게 함으로써, 본성을 함양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⁷²⁾ 이를 보면 그는 심성의 수양을 중시하는 성리학에 학문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류이좌는 과거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왕이 館學의 유생을 선발하는 親試를 건의하였다. 그의 방안

69) 『鶴樓先生文集』 권8, 「朱子大全故憲[抄啓應製]」(1799).

“批圈抄選之簡便爲弊，爾言是矣。竊附博約之一端，學者知得此意，不以辭害義可也。爾能拈出目下事爲問，可嘉可嘉。特賜鹿皮一領，以勵諸人之含糊者。今人不若古人，鉅編大帙之千百遍誦讀，勢誠難能。目今時措之方，莫過於就簡處多遍數，余之微意，政亦在是。”

70) 『鶴樓先生文集』 권8, 「大學故憲[抄啓應製]」(1799).

71) 『鶴樓先生文集』 권8, 「朱子大全故憲[抄啓應製]」(1799).

72) 『鶴樓先生文集』 권8, 「大學故憲[抄啓應製]」(1799).

“臣竊觀賢關之上，所以策勵而勸獎之者，不過乎章句藻繪之末而已。爲士者亦不留意於心性文字，如四子·『心』·『近』等書，看作色籬邊物。程夫子所謂學校禮義相先之地，而月使之爭，人心日渝，士風日薄者，不幸而近之矣。雖以內閣講製之事言之，若詩若賦，未免剽竊，之史之集，專務記誦，未見有優游涵泳薰陶變化底實效。……伏願殿下，推明德新民之義，懋躬行心得之要，泮宮多士之課業，必以經傳及洛建諸子遺篇，爲旬月講誦之資，亦須專向文義，反覆討論，消除氣習，涵養本原。”

은 製述科에서는 첫째 날 국왕이 관학 유생의 策이나 表를 시험하고, 다음날 五經, 史書, 『근사록』에서 문제를 뽑아 시험하여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급제시키는 것이었다. 또 明經科에서는 초시에 講을 시험하고, 會試에서 제술을 시험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다.⁷³⁾ 류이좌의 제안은 기왕의 과거와 비슷하지만 『근사록』을 시험하고 국왕의 親試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⁷⁴⁾

류이좌는 言路를 개방하여 모든 관리가 言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세조가 史官에게도 말을 하라고 한 고사를 거론하며, 정조에게 직위가 낮은 사람의 말도 포용하라고 건의하였다.

史官이란 신하는 品秩은 낮지만 명색이 史書를 담당하는데 摯御나 摯史 같은 무리에도 비기지 못하였으니, 史官 金利用의 말은 후세에 걸치레만 중시하는 견해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聖祖(세조)께서 失言한 罰酒를 주셨으니 참으로 大聖人께서 문기를 좋아하고 도움을 구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중략)...전하(정조)께서 가까운 곳을 살피는 도리는 반드시 널리 묻고 가려내기에 힘써 합니다. 말은 賤하지만 정밀하게 가리고, 사람은 한미하지만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천 번을 생각하여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날마다 조치하는 방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⁷⁵⁾

아, 지금 세상에도 諫官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드럽게 아양을 부리며 혀를 굳게 닫는 풍조가 거의 습관이 되어 하루하루가 심해집니다....(중략)...바라건대 전하께서는 士氣를 북돋으시고 언론을 열어 天命이 영원히 계속될 근본으로 삼으십시오.⁷⁶⁾

류이좌는 모든 관리의 언론을 열라고 요청했지만, 정조는 文班으로 侍從臣을 역임한 지방관에게만 자기 고을의 폐단을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1798년(정조 22) 7월의 일이다.⁷⁷⁾ 류이좌는 정조의 조치에 반발하였다. 蔭職이나 武班 출신 관리 중에도 時務를 알고 사리에 밝은 자가 있는데, 국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조는 자신은 관리들의 입을 막은 적이 없으며, 모든 관리에게 보고하게 하면 문서가 쌓일 것인데 그 난잡함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⁷⁸⁾ 정조와 류이좌는 방법상 차이

73) 『鶴樓先生文集』 권8, 「國朝故題抄啓應製」(1799).

“於萬幾之暇, 親臨帳殿, 招集館學儒生, 出殿策或散表. 翌日, 又抽問五經四書心近等書於被選諸人, 從多畫賜第. 明經科則以講爲初試, 會試亦取製述, 人才之擢選, 庶幾不至淆亂矣.”

74) 柳台佐의 家學으로 보면 柳雲龍과 柳成龍은 모두 李滉으로부터 『근사록』을 배웠다(안병경, 「풍산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 - 류중영과 그 후손들의 학문」, 『국학연구』 35, 2018, 171~176쪽). 그러나 같은 남인계 인사였던 丁若鏞이 제안한 文科의 經史 과목을 보면 『近思錄』은 아예 빠져 있었다(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인재선발론」, 『茶山學』 31, 2017, 75~92쪽).

75) 『鶴樓先生文集』 권8, 「國朝故題抄啓應製」(1799).

76) 『鶴樓先生文集』 권8, 「國朝故題抄啓應製」(1799).

77) 김문식, 「18세기 국왕의 소통 방식」, 『韓國實學研究』 28, 2014, 166~167쪽.

78) 『弘齋全書』 권131, 故寔3, 「朱子大全 二」.

“迺者, 聖明申命守土諸臣, 各陳其州弊. 而文臣之曾經侍從者外, 若蔭若武, 不能自達. 其中亦必有識時務達事理者, 一欲罄效於天聽, 而怵畏不敢者矣. 其必明降聖旨, 一例許通, 不以人微而疏斥焉. / 芻蕘之言, 聖人擇焉, 今之蔭武, 亦何嘗禁止其口. 而若欲別出令式, 使人人進一封琅函, 則公車之日積, 將不勝其猥雜, 爾不識堂陛之所以遠於地乎?”

“/” 표시의 앞부분은 류이좌가 건의한 것이고 뒷부분은 정조의 답변이다. 이하 동일함.

는 있었지만 모든 관리의 연로를 열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류이좌는 당대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가의 財用이 부족하고 백성들의 생계가 고갈된 것은 탐관오리 때문이라며, 貪虐한 관리를 징계하기 위해 그 아들, 사위, 아우, 조카까지 연좌시켜 관직에 등용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정조는 급선무 중의 하나라며 그 권의를 수용하였다.⁷⁹⁾

류이좌는 정조가 관심을 기울이던 華城을 육성시키는 방안으로 주변 지역의 軍額을 移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화성의 인구를 늘리려면 재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며, 화성의 토지가 좁아 그 소출만으로는 많은 軍民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화성 주변에 있는 5개 읍의 군액을 이속시키면 재물로 사람을 모으는 도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조는 이를 수용하였다.⁸⁰⁾

류이좌는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요충지인 鳥嶺 지역의 收稅 폐단이 심각함을 알렸다. 이곳은 산지로 둘러싸여 백성들은 火田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데, 관리와 서리들이 항상 세금을 거둬 이익을 차지하니 關防을 중시하고 人民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류이좌는 이 지역의 세금을 즉시 면제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정조는 廟堂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류이좌 : “臣이 聞喜(聞慶)의 鳥嶺鎭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 鎭은 바로 南路의 목구멍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안에 모집해 둔 백성들 중 살길이 막막한 자들이 산에 불을 놓아 밭을 만들어 생계의 밑천으로 삼습니다. 書吏와 軍校들은 여기에 세금을 거두고, 城將은 그 이익을 독점하며, 수령은 그 膏血을 짜냅니다. 비록 황폐한 지 오래된 곳이라도 한번 세금을 매기면 계속 세금을 거두어, 해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실정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즉시 道臣에게 조사 심문하고 세금을 견감하거나 폐지시키게 하여, 곤궁한 백성들이 살 곳을 보존하는 방책으로 삼으소서.”

정조 : “조령은 南路의 제일 관방으로, 임진왜란 때 지키지 못했던 것도 人和가 地利만 못했기 때문이다. 鎭의 백성도 백성인데 보살펴 주지는 못할망정 苛斂誅求를 일삼다니 道臣과 수령의 죄이다. 廟堂에서 네가 진달한 조목들을 해당 道에 關會하여 즉시 구휼하고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하여 보고하라.”⁸¹⁾

79) 『鶴樓先生文集』 권8, 「國朝故題抄啓應製」(1799).

“『大典通編』, 貪賊被論者, 觀察使啓聞. 今之國用上貧, 而民產下罄者, 實由於汙吏之肆行也. 莫若申明懲貪之典, 有犯者子孀弟姪, 勿叙東班正職, 有廉白者, 輒施褒賞之恩, 使知懲勸, 然後民國之財用, 庶幾無上下俱困之嘆矣. / 烹阿賞卽墨, 齊國所以大治, 爾言可謂急務之一.”

80) 『鶴樓先生文集』 권8, 「國朝故題抄啓應製」(1799).

“是知仁民愛物之施, 莫先於聚人以財. 而其所以聚之者, 亦必有本末緩急之序. 徇其末者, 竭其智力而不足, 得其本者, 運以一心而有餘. 相土地之宜, 厚制產之源者, 聚民之本也. 築室家之居, 按軍民之籍者, 聚民之末也. 我聖祖當日得民之衆, 亦豈非有得於先本後末者乎? 今我殿下, 行仁以孝爲所, 重設新邑, 八域之民, 舉皆感應而慕悅之, 欲受一廬之居, 思效維星之拱. ……雖然, 臣嘗歷觀之, 土地之品非不肥沃, 而幅圓猶欠狹小, 溝渠之鑿非不深廣, 而灌注有難周徧. 以若土地之出, 接濟許多軍民, 決不可比屋贍足, 必須別殷講究, 別殷區劃. 如五邑軍額之通融移屬然後, 方可有得於聚人以財之道, 而仁民愛物, 厥施斯普. 三百州芸芸職職, 益見于來集矣. 惟殿下深念焉. / 批曰. 第一條, 全州等地舊蹟之引諡於華城, 爾言果有理.”

81) 『弘齋全書』 권131, 故寔3, 「朱子大全 二」.

이를 보면 초계문신 류이좌는 실제로 국가를 경영할 경제 방안을 건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실현되기도 하였다. 정조가 實學을 하고 實事を 실천하기 위해 초계문신을 양성하였다면, 류이좌는 정조의 그런 의도를 충실하게 실천한 영남 출신의 인재였다.

VII. 맺음말

류이좌가 초계문신으로 활동한 1790년대는 정조의 개혁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였다. 정조는 1789년에 사도세자의 묘소를 花山 아래로 옮기고 華城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사도세자를 완전히 복권시키려는 자신의 구상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1791년에 진산사건이 발생하면서 서학을 수용했던 경기 남인들이 타격을 받았다. 채제공을 영수로 하는 경기 남인들은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기고 화성을 건설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정치세력이었다.

정조는 진산사건으로 인한 경기 남인들의 세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영남 남인들을 주목하였다. 정조는 1788년에 戊申亂 발생 60주년을 맞아 영남 지역의 의거를 기록한 『戊申倡義錄』을 경상감영에서 인쇄하여 관련 인사들에게 배포하게 하고, 1792년에는 도산서원에서 別試를 실시하여 영남의 인재를 선발하고 『嶠南賓興錄』을 간행하여 배포하게 하였다. 정조는 1794년에 영남 명문가의 文籍을 열람한 후 御製序文을 지어주고, 1796년에 자신이 편집한 『五經百篇』의 교정과 필사를 영남 유생과 營吏에게 맡기고 상을 주었으며, 1798년에 영남 출신 인물들의 행적을 종합하여 정리한 『嶠南人物考』를 편찬하게 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조치들은 영남 남인을 육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1792년에 영남 남인들은 정조의 조치에 화답하여 사도세자의 복권을 주장하는 영남만인소를 올렸다.⁸²⁾

영남 사족인 류이좌가 문과에 급제하고 초계문신에 선발된 1794년은 정조가 영남 남인을 육성하는 조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보다 앞서 류이좌는 영남만인소의 작성에 참가하여 정조를 대면하였고, 그가 문과에 급제할 때 사촌형이자 류성룡의 奉祀孫인 柳相祚도 함께 급제하였다. 또한 그가 초계문신이 될 때에는 도산서원 별시에서 발탁된 金熙洛도 초계문신으로 선발되었고, 그는 초계문신에 선발된 직후 정조가 서문을 짓고 채제공이 발문을 쓴 명나라 장수들의 서화첩을 가지고 고향으로 갔다. 이 시기에 류이좌를 비롯한 영남 사족들이 집중적으로 선발된 배경에는 정조와 채제공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다.

李集載는 정조와 류이좌의 관계를 ‘君臣而師生’이라 하였다.⁸³⁾ 정조가 국왕이자 스승인 君師라면, 류이좌는 정조의 신하이자 학생이라는 의미였다. 류이좌는 정조가 마련한 초계문신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經書를 익히고 문장력을 키웠으며, 혜경궁 진찬이나 황단 제향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여 국왕의 御製詩에 화

82) 정조의 영남 남인에 대한 조치는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435~49쪽.

83) 『鶴樓先生文集』 권20, 附錄, 「行狀李集載」.

“蓋公淹貫經籍，明練典故。凡於聖問之及，雖倉卒敷對，而因文傅義，鑿鑿中窾，輒蒙上聖之褒諭如此。論者以爲當時契遇，實君臣而師生也。”

답하는 시를 지어 올렸다. 또한 그는 규장각에서 주관하는 편찬 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奎章之寶가 선명하게 찍힌 서적들을 하사받았다. 류이좌는 정조대 규장각의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며 학자와 관리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나갔다.

초계문신 류이좌는 정조와 경서를 토론하면서 주자학을 존숭하고 퇴계의 학설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조도 주자학을 正學으로 규정하고 퇴계의 학설을 인정하였지만 류이좌는 주자학과 퇴계 학설을 존중하는 정도가 정조보다 강했다. 류이좌는 정조에게 경세 방안을 건의하였고 그중 일부는 실현되기도 하였다. 그는 정조가 학문 연구와 서적 편찬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였고, 당대의 교육 제도나 과거 제도는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관리의 言路를 개방하고 탐관오리를 강하게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고, 화성을 육성시킬 방안과 조령 지역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류이좌의 건의를 수용하였다.

류이좌는 경기 남인의 세력이 약화되자 영남 남인을 육성하려는 정조의 의도를 따라 초계문신에 선발되었으며, 정조의 개혁정치를 실천할 인재로 성장한 영남의 명문 사족이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奎章閣志』

『退溪先生文集』

『弘齋全書』

『樊巖先生集』

『鶴棲先生文集』

『百世隕結錄』

『刊所日記』

『河窩日錄』

『豐山柳氏世譜』

『柳台佐賜祭文』

김정민 · 박세욱 · 김명자 등 옮김,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 하와일록』, 한국국학진흥원, 2015.

한국국학진흥원, 『풍산류씨 화경당(북촌대)』, 2014.

- 김명자,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河回 풍산류씨豊山柳氏의 현실 대응과 관계망의 변화」, 『국학연구』 29, 2016.
-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 김문식, 「18세기 국왕의 소통 방식」, 『韓國實學研究』 28, 2014.
-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인재선발론」, 『茶山學』 31, 2017.
- 김성우, 「1800년 ‘인동 작변(仁同作變)’을 둘러싼 다중의 시선들」, 『역사와 현실』 82, 2011.
- 김성우, 「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1, 2012.
- 金貞云, 『17~18세기 경상도 북부지역 사족의 친족관계 연구: 일기에 나타난 혼인과 제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안병길, 「풍산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류중영과 그 후손들의 학문」, 『국학연구』 35, 2018.

* 이 논문은 2019년 5월 14일에 투고되어,
 2019년 6월 17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7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7월 2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he Activities of Chogye Munsin Ryu Yi-jwa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Kim, Moonsik*

This paper was written to examine how King Jeongjo's education policy affected the Yeongnam nobleman, through the activities of Ryu Yi-jwa, who was selected as a member of the Kyujanggak Chogye Munshin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In the 1790s, King Jeongjo took note of the Namin's power living in Yeongnam area and concentrated on selecting them. Ryu Yi-jwa, a member of Yeongnam nobleman, was selected for the Chogye Munshin and acted in the center of the country with the backing of King Jeongjo and Chae Je-gong, the head of Namin group.

Ryu Yi-jwa learned the Confucian scriptures and cultivated his writing skills while taking the course of education for the Chogye Munshin, participated in national events and wrote poems in response to King Jeongjo's poems. He also participated in a compilation project organized by Kyujanggak and was granted a newly published book. Ryu Yi-jwa served as a Kyujanggak Chogye Munshin, and developed his skills as a scholar and official.

Ryu Yi-jwa respected the doctrines of Zhu Xi and strongly supported the theory of Toegye Lee Hwang while discussing Confucianism with King Jeongjo. Although King Jeongjo also recognized the doctrines of Zhu Xi and Toegye Lee Hwang, Ryu respected the theory more than the king did. Ryu Yi-jwa suggested a governing plan to King Jeongjo, some of which were realized. Ryu Yi-jwa was wary of King Jeongjo's excessive concentration on academic research and book compilation, and asked him to strongly discipline the corrupt official. He also proposed plans to foster Hwaseong and to correct the problems of Jolyeong area. His plans were accepted by King Jeongjo.

Ryu Yi-jwa was selected for Chogye Munshin according to Jeongjo's intentions, and was a member of the Yeongnam nobleman who grew up as a person who would practice the reform politics of King Jeongjo.

[Key Words] Ryu Yi-jwa, King Jeongjo, Chae Je-gong, Chogye Munsin(civil government official selected by the king), the doctrines of Zhu Xi, Namin living in Yeongnam area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